



우리나라 최대의 항만도시, 부산

1876년 개항 이래 우리 나라의 수출주도형 성장정책 추진으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오늘날의 번영에 이르기까지 해외 진출의 교두보이자 민주화의 산실로써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우리 나라 최대의 항만도시인 부산은 지금 새로운 밀레니엄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산업경제 특성

최근 부산시의 산업경제에 대해 공식발표된 2001년도 자료에 의하면 부산지역 총 사업장수는 263,117개에 1,117,981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전국 사업장수의 8.6%와 근로자의 7.8%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 중 85.8%인 255,713개사가 5인 미만의 영세 소규모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5인 이상이 37,404개사로 14.2%를 차지하고 있다. 5인 이상 사업장 중 제조업은 9,818개 업체에 184,000명이 종사하는데, 중소기업의 비중이 서울보다 많은 99.6%를 차지한다.

중소제조업의 산업구조는 금속·기계 33.4%, 신발·섬유 27.2%, 기타 37.4%이다. 단일 품목으로는 신발 제조업이 많은 것이 인상적이다. 이는 곧 신발산업단지 조성과 우수 중소기업이 함께 부산 공동브랜드인 “테즈락”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또한 부산지역에서는 녹산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신평, 장림지방산업단지,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등 10여개의 산업단지가 현재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다. 그중 녹산국가산업단지는 강서구 녹산동 일원에 6,960천㎡으로 가장 넓은 면적으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산지역에서는 세계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과 무역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단지 조성 등 지역산업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2002년도 부산지역 산업재해율이 1.14%, 사망만인율 2.83%는 동기 대비 전국 평균재해율(0.77%)보다 월등하게 높다. 이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산업구조의 취약점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부산시의 재난방지 시스템은?

부산소방본부는 3개년 계획으로 시행중인 ‘119종합정보시스템’의



지역 안전기행

구축사업과 더불어 산하 10개 소방서의 상황실을 본부 종합상황실로 통합하는 작업을 실시하여 현재 일부사업 완료 후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소방서별로 받고 있던 119신고전화를 비롯해 가스, 환경, 전기 등 각종 재난사고에 관한 신고전화도 본부에서 119로 통합하여 접수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목요연한 소방력 관리가 이루어짐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 정확한 상황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119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되는 2004년 2월이 되면 부산시민은 보다 나은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대형재난의 접수에서 출동, 상황처리, 긴급구조 등 현장활동부터 총괄지휘에 이르기까지 각종 상황에 따른 종합대응능력을 극대화한다.

문의전화 : 부산시 소방본부 김성현(전화 : 051-760-3132)

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 활동

부산지역에는 안전과 관련한 단체의 본사는 없으나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활동을 전개하는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 부산지회를 비롯해 부산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이동안전관리교육협회(www.kisel.or.kr) 등이 있다.

그 중 대한산업안전협회 부산지회는 부산지역 회원 500여명과 400여개 사업장, 80여개소의 건설현장 등에 대한 안전기술지원을 통해 부산지회 관할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2년도 전국 평균 재해율 0.77과 부산지역 평균 재해율 1.14%보다 월등히 낮은 0.15%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대한산업안전협회 부산지회에서는 보다 향상된 안전기술 서비스로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사무실 이전 등 다각적인 방향 모색으로 부산지역 재해율 수준을 전국 평균 재해율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는 각오다.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의 안전인을 만나서

>> 노·사가 함께 안전을 실천하는 대우정밀(주) <<

첨단자동차 부품과 방위산업제품(총기류)을 생산하고 있는 대우정밀주식회사(김용구 대표이사)는 지난해 2월 대우통신으로부터 클린 컴퍼니로 분리하여 21세기 세계 TOP 자동차 부품메이커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회사이다.

지난해 수출 1억불 금자탑을 달성한 대우정밀은 내적인 인화와 내실경영, 정도경영, 열린경영 뿐만 아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마인드로 세계에 우뚝 선다는 각오다.

현재 대우정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무재해 3배수(540



▲ 대우정밀(주)

만시간)달성을 위한 전사적 안전의식 고취 활동으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노·사 합동으로 현장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변화하는 작업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안전마인드를 배양하기 위해 매년 관리감독자 120명씩 전문기관인 안전협회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등 작업자와 함께 안전·생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안전조직의 유연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실천하고 있다.

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로 안전제안 및 무재해 사업장 포상제와 노·사 공동으로 각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 교재를 발간하여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안전보건 시스템을 자랑하는 이곳은 안전경영체제(OSHAS 18001) 인증을 통해 선진기업 대열에 우뚝 선다는 계획이다.

부산지역을 대표하는 대우정밀(주)의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인으로서 김인준 환경안전 팀장은 부산지역 안전인들에게 “안전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화하는 것으로 모두가 하나로 고민하고 지켜나갈 때 안전의 효과는 배로 증가되며, 나와 너가 아닌 우리라는 안전 의식을 스스로 먼저 지키고 실천할 때 안전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으며, 사회의 안전은 발전한다.”고 상기시키며, 부산의 안전을 위해 함께 이끌어갈 것을 당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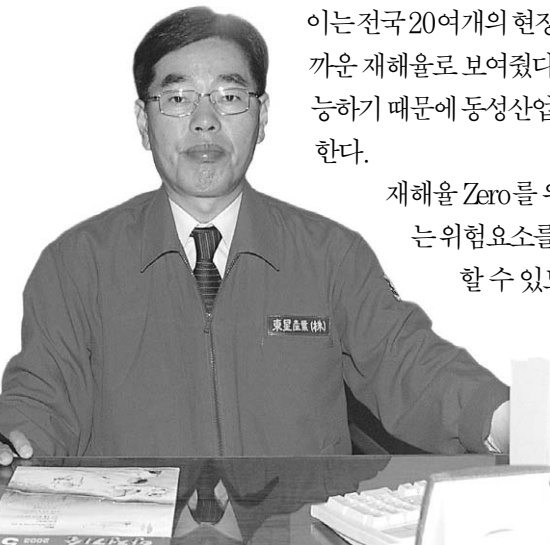
>> 안전을 기반으로 고품질 시공을 하는 동성산업주식회사 <<

관공사 위주의 시공을 하고 있는 동성산업주식회사(유진무 대표이사)는 1957년에 설립한 기업으로 관공사 위주로 선안전 고품질 시공을 지향하면서 외형적인 것보다 내실 있는 경영으로 기업의 신뢰성, 시공성에서는 부산의 어느 기업보다 우수하다고 자부하는 기업이다.

관공사만 시공하기 때문에 안전을 배제해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이는 전국 20여개의 현장에서 지난해에는 1건의 경미한 사고, 즉 Zero에 가까운 재해율로 보여줬다. 이와 관련하여 윤규상 이사는 재해율 Zero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성산업에서는 금년도 목표를 재해율 Zero로 설정했다고 한다.

재해율 Zero를 위해서는 작업시작전 해당 공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교육·숙지케 함으로써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모든 현장에서의 개구부 추락, 낙하물에 의한 작업자 상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중점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미 ISO 14001을 모든 현장에 적용한지 오래며, 안전경영시스템이 포함된 OSHAS 18001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로서 동성산



▲ 동성산업(주) 윤규상 이사



업은 선안전 후시공 즉, 안전, 환경, 품질이 공존하는 시공을 통해 2군업체지만 1군에 못지 않은 안전시스템을 정착시킨다는 각오다.

부산의 문화와 명물을 찾아


>> 부산의 명물로 등장한 광안대로 <<

부산의 새로운 명물로 탄생한 광안대로는 국내 최초로 바다위 2층 교량으로 건설된 곳이다. 광안리 해수욕장 앞바다를 가로질러 해운대구 센터시티를 연결하는 총연장 7.42km의 교량은 규모뿐만 아니라 안전성에서도 으뜸이다. 지진과 별 상관없는 도시지만 내진 1등급인 진도 6의 지진과 국내에서 아직 경험하지 못한 초속 45m의 초대형 태풍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됐다. 바람이

많은 부산의 도시 특성을 고려해 부위별로는 초속 72m까지도 견딜 수 있다. 부산에 불어닥친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큰 피해를 주었던 1959년 사라호 태풍은 풍속이 초속 34m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졌는지를 상상할 수 있다.

>> 축제의 도시 부산 <<

부산에는 다양한 국제 규모의 축제가 계절별로 다채롭게 열린다. 국제 도시답게 축제 또한 다양하다. 부산국제영화제, 자갈치문화관광축제, 부산비엔날레, 국제연날리기 대회, 북극곰수영대회, 해운대 달맞이 축제 등이 부산을 대표하는 축제들이다. 이 중 국제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부산 국제영화제는 1996년 제1회를 시작으로 매년 9월에서 10월까지 부산 전역을 영화의 바다로 변하게 한다. 국제 영화제로 시작한지 10년도 안되는 축제이지만 이미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자리매김한 상태이다.

또한 국제연날리기 대회는 부산의 축제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축제이다. 1971년부터 국내대회로 전통의 계승에 주력하다가 최근에 국제대회로 탈바꿈한 대회이다. 

<최종덕 기자>

